

완주삼례 우수저류시설 추진

군, 110억원 확보 올해부터 재난안전 으뜸도시 기틀머리

완주군은 국지성 집중호우 심화 및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지역을 홍수로 부터 예방하기 위해 '16년부터 삼례 지구에 우수저류시설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완주군이 추진계획 하고 있는 (구) 삼례역지구는 집중호우시 지형적인 침수지역으로 '중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되어 국민안전처의 공모사업으로 선정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는 주변 지형상 높은 위쪽에 우석대학교가 있어 집중호우시 우수배출 및 기존 우수관거 통수능력 부족으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5차례 피해가 발생해 이로 인하여 건물 및 상가 450동이 피해를 입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지구 가장 낮은 지점에 우수저류조 5,000㎡설치와 관로개량을 위하여 기존 설치된 우수관거규격 2.2㎡*1.2m을 3.0㎡*1.2m로, 1.0㎡*1.0m을 1.5㎡*1.0m으로 250m을 확대설치하여 내수침수에 대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뿐만 아니라, 만경강 합류지역인 후정배수문 부근에 외우수 상습시 자연배수 불량으로

농경지침수가 불가피함에 따라 외수위 역류방지시설 및 펌프일체형 수문을 설치하여 내수침수피해 해소를 위하여 강제배수로 침수로 인한 피해에 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저류시설 인근에는 막사밭 박물관 문화예술촌 등이 위치해 있어 본 지구와 병행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문화예술촌 3단계 사업추진시 주차장 및 문화공연시설 확충이 불가피함에 따라 비우기시 우수저류조 내부를 주안여우들의 공동체인 장애인보호작업장이 함께 활용하고, 상부에는 문화공연시설인 아트전시장 설치하는 등 다용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고 한다. /원주=이종복 기자

진안홍삼연구, 신제품 개발 판로확대 나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진안홍삼 초코파이' 기술개발 협약

(제)진안홍삼연구소(소장 고근택)는 지난 3일 진안군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진안홍삼 초코파이' 제품개발 및 상용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공동으로 제품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제품의 기술이전, 기술전수, 제품 고급화 등을 실시하고, 개발된 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업화 지원, 마케팅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진안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관내 장애우들이 한데 모여 공동작업하고 수익금을 장애우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여 장애우들의 자립을 돕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진안홍삼연구소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하여 홍삼 마스크팩, 아이나라 홍삼 등 총11건의 기술이전 성과를 거두어, 명실공히 진안홍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러한 진안홍삼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소비자 신뢰확보 노력의 결과 지난해 대표브랜드 대상에 이어 올해는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으로 선정됐다 있다.

이항로 군수는 "이번 협약식은 우리군의 대표사업인 진안홍삼과 관내 장애인우들의 공동체인 장애인보호작업장이 함께 뜻 깊은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앞으로도 진안홍삼의 기술개발, 신제품 출시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 진안홍삼산업 발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태술 무진장축협 상임이사 선출

무진장축협(조합장 송재근)은 4일 오전 2층 강당에서 2015년도 결산총회를 열고 '제4대 상임이사'에 전태술씨(61, 전 상무)를 선출했다.

이날 선거인(대의원) 총 71명 중 68명이 참석 전태술씨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에서 65명이 찬성(95.5%), 앞도 적으로 상임이사에 선출했다.

전 씨는 마령중학교를 나와 전북대학교 농업대학개발원 축산부문을 수료하고, 1986년 무진장축협에 근무를 시작으로 2011년 상무로 퇴직할 때까지 25여년을 축산인과 축협을 위해

몸 바쳐왔다.

전 상임이사는 당선 소감에서 "선거로 인한 조합원, 대의원, 임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한마음 한 뜻으로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어 지역사회에서 최고 강한 축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집체되어 있는 직원들의 직장 분위기 조성과 조합원에 대한 겸손과 친절을 다하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복을 넘어 우리나라의 최고가는 무진장축산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피력했다.

전 상임이사는 무진장축협에 근무하면서 농협중앙회 표창장 2회, 농협중앙회 황소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축적적을 남겼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생활민원처리 '호평'

장수군 생활민원팀이 신속한 생활민원처리로 지역주민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군은 설 연휴기간 관내 저소득세대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민원팀 활동을 강화했다.

장수군 생활민원팀은 저소득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기, 보일러 등 분야별 전문가 3명으로 구성했으며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불편 사항을 즉시 해결해주는 민생 재주꾼이다.

생활민원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세대, 독거노인 등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전기배선 및 전등 교체 등 전기시설 점검과 보일러시설 점검 및 교체수리 등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해오고 있다.

특히 긴급 상황 발생 시 야간 및 공휴일에도 운영되며 '편저 가서 살피는 서비스'로 주민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서울대 프로네시스 나눔실천단 무주고 학생 대상 멘토 봉사

서울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프로네시스 나눔실천단이 무주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봉사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동계 나눔교실은 지난해 10월 서울대가 전국 지자체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무주군의 지원과 무주고등학교(교장 윤보근) 전체 교직원들이 노력하여 11월 무주고등학교가 1차 대상학교로 선정된 후 12월 프로네시스 나눔실천단

이 무주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적합성 등 현지실사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대 프로네시스 나눔실천단 소속 멘토단(팀장 지리학과 김지연) 20명이 무주고등학교 1·2학년 학생 84명을 대상으로 '네 꿈을 잡아라'라는 주제로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나눔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무주=전문선기자

무주군, 어르신 건강관리 힘쓰다

경로당 찾아 상담·검사 실시

무주군은 12월까지 무주읍을 비롯한 무풍과 설천, 적상 안성면에 소재해 있는 경로당 10개소를 대상으로 노인 건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 담당과 방문보건 담당으로 통합건강증진팀을 구성했으며, 이달부터 7월까지 주 1회 건강기초조사와 건강상담, 낙상예방을 위한 운동지도, 침·뜸 시술 등 한방치료, 금연클리닉, 영양교육,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

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9월부터 12월까지는 월 1회 사후 건강기초조사와 건강 상담, 분야별 통합건강 환경조성 교육, 건강 위험군에 대한 한방치료와 구강진료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봉사과 위생관리 담당 부서에서는 식재료 보관상태와 조리 시설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관리 요령과 식생활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등 식품안전관리를 지원할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로컬푸드리츠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23일까지 수강생 50명 모집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배인재)은 지난 2일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농한기 프로그램 웰빙대학원을 개강했다.

웰빙대학원은 웰빙대학을 졸업한 장애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50명을 모집하여 2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23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한다.

2016년 웰빙대학원의 주제는 "웰딩(Well-Dying)"으로 내용은 죽을 준비교육, 나의 삶 돌아보기(회고와 용서), 진심으로 자화상 만들기(사회학, 노래교실 등으로 기획되어 농한기를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여자 김규태님은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줘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다음 강의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장수췌, 치매노인 신속수색 구조

장수경찰서(윤종섭)는 지난 2일, 112신고에 다급한 목소리로 치매 증세가 있는 88세 고령의 아버지가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마을 CCTV 분석 및 가족 등 주변인 탐문 수사를 통해 마을 뒤 야산 쪽에 있을 것으로 추측, 경찰서장 지휘 아래 생안과장, 여경 계장, 여경수사반, 지역경찰, 타력대 등 20명을 출동시켜 인근 아산을 약 2시간가량 면밀히 수색하였다.

수색 도중 동네 뒤 야산 산중턱에서 약 10미터 밑 골짜기에 굴러 떨어져 다리의 고동을 호소하며 제체온증과 탈수증상으로 쓰러져 있는 미귀기자를 발견하고 신속히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반딧불기관장 회원, 복지시설에 사과 전달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무주군 반딧불기관장 회원 20여 명은 지난 4일 무주종합복지관과 평화요양원, 하은의집 등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들을 위로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실현 기반을 다진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일행들은 시설 이용자와 직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기관마다 사과(5kg) 10박스를 전달했다.

시설 관계자들은 "명절이다 어르신들이 가족을 생각, 집 생각이 더 우울할 수 있는데 이렇게들 와주시니 힘이 나실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는 군청선교회(80만 원)를 비롯해 한국외식업중앙회(71만 원)와 실천면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1백만 원), 그리고 (유)이태전기 문병훈 씨가 50만 원을 기탁해와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ijmaeil.com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학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청명농산물 판매회

행사문의
진안군청 권박산업과
063-430-2951



진안한돈협회 돼지고기 나눔행사

대한한돈협회 진안군지부(지부장 구경번)는 4일 설 명절 위문품으로 돼지고기 1,000kg(500만원 상당)을 진안군 공무원들을 통해 200여가구에 나누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돼지고기 소비촉진과 함께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마련되어 주위를 더욱 훈훈하게 하고 있다.

구 지부장은 "축산업이 군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훈훈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